

# 언론 보도 사항

【2016년 02월 22일】

---

## < 목 차 >

---

1. 정월대보름 화재 예방 특별 경계근무 - KBS춘천
  2. 삼척 근덕농공단지 화재 - 방송3사
  3. 홍천강 빙판 사륜오토바이 타던 40대 익사 - 강원일보,도민일보
  4. 강원 해빙기 맞아 산악사고 잇따라 - 뉴시스
  5. 소방서 언론보도 - 강원일보, 도민일보
- 

**강원도 종합상황실**

---

## 정월대보름 화재예방 특별 경계근무



내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화재예방 특별 경계근무가 실시 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오늘부터 23일 까지 사흘간 정월대보름 화재 예방 특별경계근무를해 대보름 행사장 인근에 소방차량과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구 화재예방 감시 활동을 강화 합니다. 또 산불취약지와 등산로에 감시인력을 집중배치해 농부산물 불법 소각등을 집중 단속 합니다.

## 삼척 근덕농공단지 화재



오늘 오후 12시 10분쯤 삼척시 근덕면 농공단지에서 하수관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20대와 인력 40여 명이 진화에 나서 3시간 50분 만에 불을 꺾으며, 3,300제곱미터의 공장 1동과 장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천 9백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난 공장 안에서 보일러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건설자재 제조공장서 화재...4천만 원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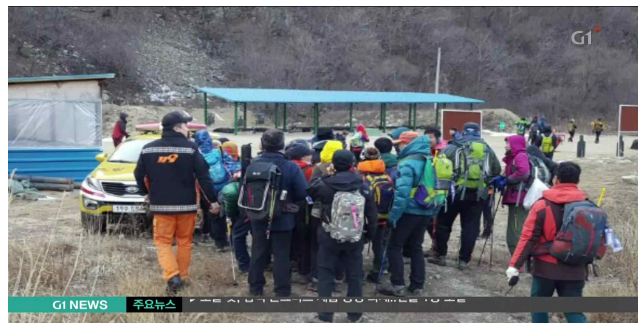


오늘 낮 12시쯤 강원도 삼척시 근덕농공단지 안의 건설자재 제조공장서 불이나 내부 8백 제곱미터를 태우고 4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휴일이어서 직원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합동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 휴일 화재·산악사고 잇따라



오늘 낮 12시 10분쯤 삼척시 근덕면의 한 콘크리트 제품 생산 공장서 불이 나, 샌드위치 패널 공장 건물 천 600여㎡를 태우고, 1시간 30여분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엔, 인제군 북면 설악산 병풍바위 인근에서 경기도와 서울에서 온 산악회 회원 44명이 길을 잃어 1시간 20여분만에 출동한 119 구조대에 구조됐습니다.

# 홍천강 빙판 사륜오토바이 타던 40대 익사

## 도내 곳곳 사건·사고 얼룩

주말과 휴일 도내 곳곳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21일 오전 10시30분께 원주시 명륜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용모(여·82)씨가 코란도 승용차에 치인 뒤 뒷바퀴에 끼여 15m가량을 끌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 허모(80)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날 낮 12시9분께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의 한 시멘트구조물 제조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시간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인명 피해

는 없었으나 공장 건물 절반가량인 140여㎡가 불에 탔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오후 1시56분께에는 홍천군 서면 마곡리 마곡유원지 인근 홍천강 빙판에서 사륜오토바이를 타던 윤모(47)씨 등 2명이 물에 빠졌다.

이 사고로 윤씨가 사고 발생 후 20여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함께 물에 빠졌던 일행 김모씨는 스스로 빠져 나와 목숨을 건졌다.

같은 날 오후 8시40분께에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인근 축사에서 축사 내부 열선 과부하로 추정되는 불이나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김설영·정윤희기자



21일 오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의 한 얼음낚시터 입구에 걸려있는 출입통제 현수막을 뒤로 한 채 아이들이 얼음낚시터로 들어가고 있다. 이종재

# 해빙기 빙판 ‘살얼음판’

**홍천강 사륜오토바이 타던 2명 빠져 1명 사망  
경고 현수막 무시, 도내 곳곳 얼음낚시 성행**

얼음 위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타던 일행 중 한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1시56분쯤 홍천군 서면 마곡리 마곡유원지 인근 홍천강 빙판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타던 윤모(47)씨 등 2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김모(37)씨는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윤씨는 미처 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얼음 속에 갇혀 숨졌다.

이날 홍천지역 낮 최고기온은 영상 8.3도를 기록하면서 주변 빙판이 녹아 가장자리에는 물이 흥건했다.

이처럼 해빙기를 맞아 수난사고가 한순간에 목숨을 잃는 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도내 강이나 저수지 곳곳에서 위험한 얼음낚시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21일 찾은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의 한 얼음낚시터 주차장에는 주말을 맞아 막바지 얼음낚시를 즐기려 온 관광객의 차량으로 가득차 있었다.

춘천과 화천지역 경계에 위치한 이곳 낚시터의 양쪽 입구에 걸려있는 ‘얼음이 녹아 위험하니 들어가지 마세요(춘천)’, ‘이 지역은 결빙이 약한 지역으로 출입을 통제합니다(화천)’라는 출입통제 현수막이 무색하게 수십여명의 강태

공들이 가족들과 함께 얼음판 위에 텐트를 치고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이날 춘천·원주·홍천 등 영서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영상 4도를 웃돌아 강가 장자리 일부에는 이미 얼음이 녹아 물이 고여있는 것이 확인됐다.

낚시꾼 이모(51·춘천)씨는 “가장자리는 얼음이 일부 녹았지만 강 상류쪽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오면 아직 얼음이 두껍다. 이달 말까지는 낚시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빙기를 맞아 수난사고가 우려되지만 낚시터 주변 어디에서도 구명조끼나 튜브 등 안전구조용품은 물론 이를 통제하는 직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하천이나 강 등에서 얼음이 깨져 물에 빠진 겨울철 수난사고는 총 6건으로 이중 4명이 숨졌다. **홍천/유주현·이종재**

해빙기를 맞아 산을 찾는 행락객들이 늘면서 산악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오후 4시13분께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병풍바위 인근에서 산악회 회원 22명이 길을 잃어 산악 구조대가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현재 군 병력과 함께 산악 회원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통화연결은 원활히 되고 있다.

앞서 20일 오후 1시30분께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삼악산에서 A(51)씨가 넘어져 다리에 부상을 입고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A씨는 일행에 인계됐다.

또 오후 1시36분께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함백산 정상에서 B씨(45·여)가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구조대는 B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 “엄마와 함께 화재 대피·안전사고 대응 체험”

춘천소방서 행사 150명 참석

춘천소방서(서장:안중석)는 지난 20일 관내 어린이와 부모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마와 함께하는 소방안전체험’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가족들은 본서 앞마당에 설치된 화재 피난체험장에 직접 들어가 화재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공포감과 연기 흡입의 위험성을 체험했다. 또 심폐소생술 교육, 소화기·소화전 사용 요령



◇춘천소방서(서장:안중석)는 지난 20일 관내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엄마와 함께하는 소방안전체험’ 행사를 열었다.

실습 등의 시간을 가지며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배웠다.

안중석 춘천소방서장은 “안

전의식 강화를 위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고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춘천=정윤호기자 jyh89@

# 응급환자 구조·이송 ... 화재도 만반의 대비

## 평창소방서

2016 국제스키연맹(FIS) 프리스타일 스키·스노보드 월드컵 대회가 지난 18일부터 열리고 있는 평창 보광 휘닉스파크에서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구조인력이 항상 대기 중이다.

매일 선수경기구역 내에 응급구조사 2명이 배치되는 것은 물론, 구급차 4대와 구급인력 8명이 휘닉스파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선수들과 스키어, 스노보더 등이 이용하는 리프트 사고에 대비해 도 소방안전본부 특수구조단 소속 긴급기동팀이 리프트 지역에 근접 배치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소방의 중점 업무는 응급환자 구조 및 이송이지만 지정 속



박시설 화재예방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대회 기간 야간에 평창소방서 소속 직원 1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화재 발생 시 숙박인원 대피 안내, 119신고, 초동 진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봉평119안전센터의 직원들도 매일 2회씩 휘닉스파크 건물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정광현 평창소방서장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경모기자



**횡성소방서** 횡성소방서(서장: 원미숙)는 강원일보사 주최 3·1절 기념 제17회 군민 건강달리기대회의 완주와 대회 안전을 결의하고, 보다 안전한 횡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2016/02/22 월  
013면 지역



◇석교준 태  
백소방서장  
은 22일 오후  
2시 소방서  
소회의실에

서 '요양원 화재예방 민·관  
합동 T/F팀 최종 보고회'  
를 개최한다.

강원도민일보

2016/02/22 월  
014면 지역



◇남궁규 고  
성소방서장  
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거  
진읍 해군

135고속정대를 방문,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강원도민일보

2016년 02월 22일 월요일  
009면 지역

• 새의자 •

박시경 흥천군 동면의용소방대장



박시경(55) 흥천 동면의용소방대장은  
“재난사고 발생 시 면민의 안전과 재산 보  
호는 물론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꼭  
필요한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장은 흥천출신으로 동화중, 흥천농고를 졸업했  
으며 지난 2002년 8월 흥천 동면의용소방대에 입대, 14  
년째 활동 중이다.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흥천/유주현



**대관령한우복지재단 취약계층 지원활동** 평창영월정 선축협이 대관령한우복지재단(대표 김영교)과 대관령면 남녀의용소방대는 지난 20일 대관령면 횡계리 독거어르신과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 집 청소 및 수리활동을 갖고 쌀감과 전기장판, 쌀, 화장지 등 물품을 전달했다.

• 새의자 •

**김 종 식 정선군 화암면 남성의용소방대장**



김종식(51) 정선군 화암면 남성의용소방대장은 “회원간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대장은 화암면 출신으로 강릉중앙고를 졸업했으며 화암면 남성의용소방대 부대장 등을 역임했다. 정선군 친환경인증농가협의회회장을 맡고 있다. 정선/박현철